

PRESS RELEASE

한국애브비, 어버이날 맞아 직원 카네이션 꽃바구니 클래스 진행

대한민국 서울, 2019년 5월 7일 - 글로벌 바이오 제약기업인 한국애브비(대표이사 강소영)가 5월 3일 서울 삼성동 본사 일진홀에서 어버이날을 앞두고 임직원 대상 카네이션 꽃바구니 클래스를 진행했다.

5월 8일 어버이날을 즈음해 런치앤런(Lunch&Learn, 간단한 점심 식사와 함께 배우는 시간) 형식으로 준비된 이번 행사는 기업 문화 및 소통 커미티인 뉴스레터팀이 기획됐다. 플로리스트를 강사로 초빙해 카네이션 꽃들을 바구니에 정성껏 꽂아 장식하는 방법을 함께 배웠다. 이번 행사에는 직원 30여 명이 참여해 각자 개성이 담긴 꽃바구니를 뽐냈다.

뉴스레터팀의 문혜원 부장은 “업무에 바쁜 직원들이 근무 중 점심시간을 활용해 꽃바구니를 만들며 스트레스도 풀고,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카네이션 선물도 준비하면 일석이조라는 생각으로 제안했는데 회사에서 흔쾌히 지원해 주고 많은 직원들도 크게 호응해 줘서 기뻐다”라며, “카네이션을 부모님께 사 드렸었는데, 이번엔 직접 정성을 담아 만든 꽃바구니를 드릴 생각을 하니 뿌듯하다”라고 말했다.

한국애브비 강소영 사장은 “건강한 가정이 중심이 될 때 직원이 업무에 몰입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라며, “직원들의 제안과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건강한 소통을 통한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한국애브비는 이번 행사 외에도 매월 둘째 주 금요일 오후는 3시에 퇴근해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패밀리데이, 직원 가족 및 자녀들을 초청해 재미있는 과학 실험과 함께 과학 원리를 알려주는 패밀리사이언스데이, 사연을 적어서 신청하면 매 분기 한 가족을 선정해 가족여행비를 지원하는 ‘우리 가족 어디가?’ 등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고 가족들과의 소통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캡션] 한국애브비가 5월 8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임직원 대상 카네이션 꽃바구니 클래스를 진행했다.

애브비에 대하여

애브비는 연구와 개발 기반의 글로벌 바이오 제약기업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어렵고 심각한 질환들을 치료하는 혁신 치료제 개발에 헌신한다. 당사의 미션은 전문성, 헌신적인 직원들, 혁신을 향한 독창적인 접근법을 통해 네 개의 중요 치료 영역인 면역학, 종양학, 바이러스학, 신경과학 분야에 걸쳐 치료법을 현저하게 개선하는 것이다. 애브비의 직원들은 75 개국 이상에서 전 세계 사람들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일 매일 노력하고 있다. 당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abbvie.com 방문, 트위터 계정@abbvienews 팔로우, 페이스북과 링크드인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애브비 (대표이사 강소영)는 130 명의 직원이 서울 본사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에 걸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상세 정보는 www.abbvie.c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